



#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행복한 Healing!

## - 알파카 월드 체험 -



올 겨울엔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사랑하는 강원도 홍천에서 뽀송뽀송한 털이 트레이드마크인 알파카를 만날 수 있는 '알파카 월드'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연 속에 숨겨진 보석같은 알파카 월드는 강원도 1호 동물원이자, 겨울 풍경이 멋진 이색 체험장입니다. 남미의 지붕 안데스 산맥을 뛰어놀던 선한 눈망울의 알파카를 비롯해 포니, 사슴, 산양, 돼지, 앵무새, 토끼 등 평소에 보기 어려운 희귀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만지며 교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평소 친한 동료이자 이웃사촌이기도 한 기획조정실 김대현 차장과 곽은성 과장의 가족들과 함께 자연이 주는 힐링과 행복에 푹 빠져보았습니다.



오랜 우정을 쌓은 동료이자, 끈끈한 이웃사촌간인  
KGS 가족들의 특별한 자연 힐링 나들이





지난 12월 9일, 기획조정실 김대현 차장과 곽은성 과장의 가족들이 강원도 홍천 알파카 월드 앞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입구로 향하는 내내 어른들의 수다와 귀여운 아이들의 재잘거림,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동반 나들이를 나온 이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서로 옆자리에 앉아 근무하며 오랜 우정을 쌓은 동료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평소에도 아내와 아이들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사촌입니다. 심지어 두 딸의 이름도 ‘민서’로 같아서 김민서양은 ‘큰 민서’로, 곽민서양은 ‘작은 민서’라는 애칭으로 불린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기 위해 멋진 카메라도 준비한 김대현 차장. TV에서만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이들보다 더 들뜬 모습입니다.

## 동물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신나는 ‘먹이주기 체험’





KGS 가족 일행이 가장 먼저 마주한 '포니 나라'에는 일반 말들에 비해 아주 작고 귀여운 포니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하게 먹이 장갑을 착용한 후 포니에게 당근 먹이주기 체험을 해봅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무섭기 마련인데요. 내년엔 중학교에 들어가는 '큰 민서'가 먼저 용기 내어 포니에게 당근을 먹여주자, 뒤이어 준혁이와 현서도 포니에게 다가갑니다. 7살인 '작은 민서'는 처음 보는 포니에 겁먹은 듯 싶었으나 엄마의 도움을 받아 먹이주기에 성공!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네요. 포니는 성격이 유순하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까닭에 금세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자연, 동물, 사람이 함께하는 알파카 월드에서 멋진 경치를 즐기며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동화에서 보던 담비 같은 사슴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사슴 나라' 앞 광장에는 널뛰기와 통통 뛰는 라바 장난감을 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세 준혁이와 '작은 민서'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작은 민서'는 '큰 민서' 언니의 도움을 받아 널뛰기를 타보더니 이내 "아고, 힘들어!"하며 엄마에게 안깁니다. 작은 틈새공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추위도 잊게 만드는 즐거운 놀이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서 와~ 이런 만남 처음이지?

자연과 동물을 배려하는 올바른 대면 '알파카 교감 체험'





드디어, 알파카를 만나볼 시간! 알파카 월드 내의 '숲의 카페'는 울타리 없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적인 관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알파카와 가까이서 사진도 찍고, 직접 사육사가 되어 먹이를 건네주는 등 생생한 동물교감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풍성한 털, 인형같이 귀여운 폭풍 비주얼을 자랑하는 알파카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너도나도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육사의 체험 안내에 따라 먹이를 낀 손을 내밀자 성큼성큼 몰려오는 알파카들! '큰 민서'와 준혁이 남매는 TV에서 알파카를 봤었다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까이에서 알파카들의 목과 등을 어루만지고 먹이를 주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알파카 월드에는 수시로 친환경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타고 상쾌한 바람과 나무의 향기를 기분 좋게 느끼며 또 다른 알파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일행이 도착한 '알파카 하우스'에는 알파카는 물론, 한 칸에 온순하고 귀여운 아기 돼지와 염소도 있어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아직은 겁이 많은 '작은 민서'가 뻔히 지켜보기만 하자, 오빠 현서가 먼저 씩씩하게 동물들에게 손을 내미는 시범을 보이며 괜찮다고 안심시켜 줍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예쁜 순간입니다.



알록달록 색깔을 뽐내는 앵무새, 고집스런 당나귀,  
눈이 인상적인 유산양, 자그마한 토끼까지  
**'애니멀 존'의 매력 팡팡 동물친구들!**





이 밖에도 알파카 월드에는 무척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새들의 정원’에서는 사람 말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까지 흉내 내는 앵무새와 예쁜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는 카나리아를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가 먹이도 주고 만져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은 자연스럽게 사람 손 위에 앉기도 하고 아이들의 손 위의 먹이도 서슴없이 먹기도 하는데요. 새장에 갇힌 새를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렀던 ‘토끼 나라’에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토끼들이 굴에 들어가 있었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토끼들을 안아주고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이 무서웠던 ‘작은 민서’는 몸집이 작고 귀여운 토끼를 보자 용기 내어 다가섰고, “토끼털이 정말 보들보들해요~ 귀여워!”하면서 즐거워했답니다.



## 자연, 동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숲 속의 동물나라 카페에서 가지는 Tea Time, 차 한잔의 여유



(좌로부터) 곽현서, 김준혁, 김민서, 곽민서

동물과의 교감은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아주기도 하죠.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오늘 체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KGS 가족들! 곳곳에 마련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숲 속 동물원을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간이 되었다며 모두들 만족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멋진 포즈를 취하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진을 남겨봅니다. “모두들 브이~v”



“

김대현 차장님 가족 분들과 저희 가족이 함께 동물들을 체험하고 나들이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민서가 처음에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을 보고 겁냈던 점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아하는 토끼를 보고 기뻐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아이들과 더 자주 나와야겠다고 반성했네요. 하하. 알파카 월드 주변에는 쌓인 먼지 선경도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 Interview



▲ 기획조정실  
곽은성 과장, 곽민서 (7세)

모 미지각에는 좋아하는 토끼를 보고 기뻐해서 더 좋아해요. 요즘도 아이들과 더 자주 나와야겠다고 반성했네요. 하하. 알파카 월드 주변에 눈 쌓인 멋진 설경도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다른 사우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겁이 많아서 동물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서는 토끼도 용기 내서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가족이 다 함께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특히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물이 아닌 알파카와 그 외에도 여러 동물들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먹이도 주는 체험들을 할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참 좋았습니다.

유선옥 (기획조정실 곽은성 과장 배우자)



남편 분들끼리는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친하고, 또 저희가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데, 곽은성 과장님네 가족과 같은 아파트여서 평소에 아이들끼리도 친하기도 해요. 마침 알파카 월드에서 이색 체험이 있다고 하여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족여행을 와서 아이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체험해 보니 참 좋네요.

함은미 (기획조정실 김대현 차장 배우자)



## 따뜻한 교감과 일상의 휴식이 필요한 지금, 예쁜 숲 속 동물나라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눠보길



강원도 홍천의 넓은 자연을 누리면서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했던 오늘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면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KGG인과 가족들은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교감과 일상의 휴식이 필요한 지금, KGS인들도 가족과 함께 예쁜 숲 속 동물나라에서 마음껏 동물들을 쓰다듬고 안아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Natural  
Healing  
Time